금정총림범어, 복지로 연 정토세상 20년

11월 15일, 창립20돌 범어복지대회 개최

복지로 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창립된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가 20돌을 맞았다. 창립기념일을 맞아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는 불교복지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함께 노력한 모든 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을 마련한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대표이사 경선 · 이하 범어)가 '창립 20돌 기념 범어복지대회'를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허심청 대청홀에서 개최한다.

범어복지대회는 먼저 '불교법인의 위상과 우리가 만드는 법인의 미래'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연다. 토크 콘서트는 박경일 동국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불교복지에 대한 새로운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아울러 김영 범어 사무국장이 '금정총림범어의 성과와 중장기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BNK 부산은행 실내악단의 축하공연이 무대를 장식하고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기념법회는 법인 상임이사 선재 스님이 그동안 활동 연혁과 성과를 보고한다. 사회복지유공자 시상식도 진행된다. 상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부산시장상 등 봉사자와 기관 단체 총 8명을 선정해 수여한다. 특별 순서로 '108 후원단' 단장 위촉장 수여 및 소감 발표가 이어진다. 위촉장 수여 후에는 대표이사 경선 스님의 대회사, 내빈의 격려사 및 축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 사무국장은 "불교복지는 안정된 후원처가 있어 꾸준히 복지사업을 펼칠 수 있는 강점을 지녔다"며 "반면에 후원자 모집을 통한 복지활동 참여도는 저조한 편이다. 이를 개선하고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후원자를 모집하고 복지사

박경일 교수 토크 콘서트
미래 불교복지 대안 제시
공로자 단체 및 개인 표창
"후원자 복지 참여 높일 것"

각지대를 찾아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범어는 현재 '108 후원단'과 '천수천안 천만 후원단'을 모집 중이다. '108 후원단'은 한 달에 한 번 '좋은 인연 맺기'에 참여할 수 있다. '좋은 인연 맺기'는 평소 만나기 어려운 스님을 친견하고 직접 질의하며 불교에 대해 습의하는 시간으로 일반 사회인을 위한 자리다. 아울러 네트워크를 형성해 후원금 사용 방법에 의견을 개진하고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후원자 자격은 누구나 가능하며 후원금은 한 달에 5만원이다. '천수천안 천만 후원단'은 한 달에 1만원을 법인에 후원하는 1천명 후원자 모임이다. 후원금은 범어에서 운영하는 복지뿐 아니라 청소년 사업을 위해 사용된다. 후원자는 연 1회 법인 후원금 보고를 받으며 각종 행사에 초청된다.


사회복지법인 금정총림범어가 '창립 20돌 기념 범어복지대회'를 11월 15일 오후 4시 30분 허심청 대청홀에서 개최한다. 사진은 2013년 자비의 김장나눔 현장.

법인 범어는 1997년 11월 20일 사회복지법인 범어사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첫 사업으로 무료 급식소를 개소하고 2000년에는 실직노숙자쉼터 선혜마을을 위탁 운영해 본격적인 나눔 복지를 지향했다. 이후 전문복지활동을 위해 2001년 9월 1일 범어사 사회복지센터를 개소하고 2002년 1월 1일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을 위탁 운영했다. 현재 마야 어린이집, 화명종합사회복지관, 금정노인요양원 등 법인 산하 총 12개 복지시설 및 청소년 시설을 운영 중이다.

하성미 기자

전등사, 민초 위한 희망의 등불 100년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 봉행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까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초를 위한 등불로 활동해 온 전등사가 창건 100주년을 맞았다.

전등사(주지 도문)는 10월 29일 전등사 대웅전에서 '창건 10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기념법회는 1부 점안법회로 대웅전 삼존불 개금 점안의식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 헌다례 및 전등사 100년 사적 도록 봉정식이 이어졌다. 이어 모범불자 표창, 이웃돕기 쌀 500포 전달식 순서로 진행됐다.

주지 도문 스님은 "부처님 개금 점안식은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자 도리라 생각한다. 모든 신도님들이 함께 동참한 참된 인연불사"라며 "아울러 100년사를 돌아보는 도록을 발간하고 역대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공덕을 기릴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전등사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부산 동래 망월산 자락에 창건됐다. 현재 장학회 운영으로 인재 불사에 앞장서며 문수회, 다향회, 등불회 등 신도단체로 신행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법회에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부산동래구불교연합회 회원과 서병수 부산시장, 최인호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한국불교선조계종 창종 4주년 기념법회

10월 31일 종정 이 · 취임도



(사)한국불교선조계종(총무원장 법성)은 10월 31일 창종 4주년 기념 및 종정 이 · 취임법회를 부산 덕천동 성원사에서 봉행했다. 법회에는 종정 예호당 법정 대종사, 원로의장 정인 스님, 원로 지선 · 혜원 · 월현 · 정광 스님, 총무원장 법성 스님, 종회의장 법륜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사진〉

경과보고에 이어 원로의장 정인 스님과 총무원장 법성 스님은 종단기를 전달받았다. 법성 스님은 "앞으로 구태불교를 개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으로 정립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평화와 불교중흥의 부처님 가르침을 계승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원로의장 정인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와 자애가 우리 중생들의 마음을 편안함으로 인도해주는 오늘 이 대법회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참 뜻을 새기는 계기가 된 것이다"고 축하했다.

종정 법경 스님은 "법이란 마음과 경계를 모두 잊어 버려야 참 법"이라며 "구함이 없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또한 멸하지 않을 것이니 생멸이 없는 그것이 바로 부처"라고 법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가야산 자은사 대웅전 낙성식 및 점안법회

태고종 경북교구 분원 자은사(주지 지형)가 10월 29일 대웅전 낙성식 및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화엄선종 총무원장 무송 스님과 문도회장 도성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사진〉

무송 스님은 "부처님 조성과 점안으로 나투신 환희심으로 신심을 갖고, 이제부터 불자들의 몫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예배하고 믿고 따라 복락을 이뤄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은사 주지 지형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는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하니 앞으로 더욱 자비를 실천하는 마음가짐으로 더 큰 원을 세워 수행정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자은사는 앞으로 극락전, 용왕당 불사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번뇌 · 보리가 하나의 門으로"

삼광사 일주문 낙성 1만 사부대중 동참

천태종 삼광사가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사부대중은 국태민안과 국운융창을 기원하며 일주문을 지나 함께 경내에 입장했다.

삼광사(주지 세운)는 11월 1일 일주문 앞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일주문 높이는 6m로, 배흘림기둥과 다포식 공포의 맞배지붕으로 건립됐다.

현판 제막식 후 삼광사는 지관전에서 '삼광사 신도회 창립 48주년 기념대법회 및 일주문 낙성식'을 봉행했다. 삼광사는 기념대법회를 통해 국태민안과 국운융창, 2030국제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함께 기원했다.

법회에서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번뇌와 보리가 하나의 문으로 제법이 그대로 실상의 묘법이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는 일대사인연은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지견을 얻게 하는 것이다"고 법문했다.

주지 세운 스님은 "우리가 일주문을 세운 것은 오고가는 마음에 번뇌가 없는 일심이 되고, 그 하나 된 마음조차도 멸하여 각자의 여래장에 연화 꽃이 피기를 기원하기 위해서다"며 "오늘의 인연을 이어 부산은 2030세계등록엑스포를 유치하길 바란다. 또 우리나라는 국민화합으로 남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세계인류 평등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기원하자"고 말했다.


삼광사는 11월 1일 일주문 앞에서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일주문 높이는 6m로, 배흘림기둥과 다포식 공포의 맞배지붕으로 건립됐다.

낙성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해 원로원장 운덕 스님, 종의회의장 도원 스님,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백종헌 부산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삼광사는 11월 2일 '국화문화축제'를 삼광사 경내에 개최했다. 축제는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의 토크 콘서트, 들차체험 및 시연, 들꽃 분재 만들기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2017 부산불교합창 경연대회 열린다

11월 14일 금정문화회관서

부산 각 사찰에서 활동하는 합창단이 한자리에 모여 경연으로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박화자)는 11월 14일 오후 5시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2017년 부산불교합창제'를 개최한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는 매년 생명 · 사랑 · 나눔 · 보시를 주제로 유명 연주자를 초청하고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등 다채로운 합창제를 진행해 왔다. 올해는 특별히 부산에서 활동하는 사찰 합창단의 경연대회로 개최된다.

참가팀은 관음사 환희 합창단, 대광명사 소리장엄합창단, 문수사 마야 합창단,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등 11개팀이 참가한다.

시상은 대상(1팀) 상금 300만원, 금상(1팀) 상금 200만원, 은상(2팀) 상금 150만원, 동상(2팀) 상금 100만원, 장려(5팀) 상금 50만원이 전달된다. 또한 이번 대회서는 지휘자상이 수여된다. 지휘자상을 받은 지휘자는 부산불교연합합창단 신임 지휘자로 활동하게 된다.

하성미 기자



